

30년 에돌아 토해낸 오대산 예찬



아하! 절에 불상이 없네 윤범모 지음 | 다할미디어 | 1만원

“나의 어머니가 문둥이라 해도 어머니는 어머니이다. 오대산이 허물을 가지고 있다 해도 오대산은 나의 영원한 고향이다. 비록 누구 하나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미술평론가 윤범모 교수(경원대)는 오대산 예찬론자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오대산 사람이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오대산과 20대부터 맺어온 인연의 끈을 30년이 지난 지금도 한결같이 이어가고 있으니 말이다.

<아하! 절에 불상이 없네>는 윤 교수가 20대부터 오대산을 방문해 보고 느낀 것과 3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찾은 오대산. 여기에 문수신앙과 보현신앙의 성지인 중국 오대산과 아미산 등을 둘러본 감회를 종교미술사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일종의 기행산문집이다. 여기서 제목이 의미하는 것은 금자그대로 불상 없이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는 오대산 적멸보궁을 뜻한다.

저자는 오대산이 자연의 존재를 깨닫게 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역사와 불교, 그리고 민족의 존재에 대해서도 자각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예찬한다. 그래서 오대산은 관광지라기보다는 하나의 성지이고, 우리민족의 도량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저자는 유물이나 유적을 안내할 목적에서 보다 우리의 삶을 안내할 목적으로 이 책을 썼다고 밝힌다.

이에 걸맞게 책의 시작도 주인공 석우가 오대산에서 띄우는 편지 형태로 스무 살 언저리의 처기와 객기, 그리고 성찰을 깊고 담담하게 토로하고 있다. 소설도 아닌데 편지의 주인공인 석우가 누구일까 한편으론 의구심이 들지만 저자는 책의 서두에서 오대산 시절 추억속의 이름일 뿐 굳이 관심을 집중시키지 말라고 일침을 놓는다.

저자에게 있어 20대 시절의 오대산은 자연과 역사와 불교, 민족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귀중한 존재였다. 하지만 하산 이후 오대산에



월정사 전나무 숲길 사이에 있는 고승들의 부도탑은 세월의 무게를 느끼게 해준다.

서의 귀중한 체험과 깨달음은 뇌리에서 사라지고 30년 동안 그 추억의 현장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남아 있었다.

평론가답게 ‘자살하기 좋은 곳입니다, 서대수정암에서’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글도 눈에 띈다. 나와지붕으로 만든 오대산 서대수정암의 아름다움이 너무나 아름다워 죽음을 유혹하기에 충분하다는 반어법을 쓴 것이다. 너무나 경치가 아름다우면 영원한 안식처로 느껴져 자살하고픈 충동이 드는 모양이다. 태평양 연안의 휴양지인 팔에 가도 일명 ‘자살바위’라는 절경의 관광지가 있으니 말이다.

또한 이 책에는 탄허 스님을 만난 일화도 적혀 있다. ‘당당한 체구에 둥그런 얼굴...’로 묘사되는 탄허 스님은 언제 어디서나 경전의 원문을 줄줄히 외워대는 대학자였다고 소개한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학식을 뽐내고자 하는 현학적인 모습이 아닌 중생의 번뇌를 깨우치려는 법문이였으며, 저자 인생에 있어 큰 가

르침으로 남겨져 있다고 고백한다.

30년이 지난 뒤 저자는 강원도 오대산의 원형인 중국 오대산과 함께 세속의 실천적 구도 신앙인 보현신앙의 성지 아미산을 찾았다. 문수와 보현은 항상 짝을 이루며 거론되기 때문이다. 미술사학자답게 중국쪽 종교·미술사적인 유적과 유물에 대한 짙막한 총평과 감상도 솔솔한 재미를 느끼게 한다.

무엇보다 저자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30년 후 오대산을 다시 찾아 짧은 시절 방황의 흔적들을 되짚어간다. 그리고 다시 용기와 지혜를 얻는다. ‘산은 여전했으나 사람들의 모습은 예전 같지 않으며 과거는 과거이고, 미래는 미래이다’라고. 산이 마음의 정화를 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새로운 나날을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한다.

1부 ‘오대산 통신’ 2부 ‘문수신앙의 성지 중국 오대산을 가다’로 구성된 책은 문수성지인 오대산과 한국전란으로 소실됐던 월정사, 그리고 한국불교의 상징인 한암·탄허 스님 등 고승들에 얽힌 이야기를 50여편의 글편으로 담아냈다. 또한 60여점의 사진자료도 함께 실려 있어 오대산의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미술 평론가 윤범모 교수 20대시절 역사·불교·민족 일깨워 준 오대산과 맺은 특별한 인연 기록한 산문집



꿈꾸는 여유, 그리스 권삼윤 지음 | 푸른숲 | 1만3천원

파르테논 신전과 하얀색 돔 모양의 건물들이 즐비한 에게해의 나라 그리스. 최근 이 그리스란 나라의 이름이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 한 달 후로 다가온 올림픽과 얼마 전 끝난 유럽축구선수권대회 우승 때문이다. ‘그리스 신화’ 정도라면 기억되던 나라가 색다른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에 실제로 가보면 우리가 익히 알지 못하는 자산이 많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사람과 자연이다.

유럽문명의 원류이면서 지역적으로는 변방에 있던 이유로 그리스 문화는 다른 유럽과는 구별된다. 물론 사람들 성향도 그렇다. 그리스 사람들은 고집이 세지만 매우 순수하고 낙천적인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다.

<꿈꾸는 여유, 그리스>는 20여년간 고대 문명 발상지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세계 유명 박물관·미술관 등을 찾아 60개

척박함 즐긴 낙천적인 그리스인

우주와 신화에 몰두했던 자유 느껴봐

국을 답사한 프리랜서 여행작가가 화려한 풍광과 여유로움을 포착해 전하는 ‘그리스적 삶의 방식’이다. 아름다운 산과 해변, 낯선 사람들조차 환대하는 따스함, 집착하지 않지만 대의를 존중하는 문화와 전통의 힘을 그린다.

“이 섬에 발을 디디는 모든 사람은 피 속으로 파스하고 온화하게 퍼지는 신비한 힘을 의식하고 영혼이 자라기 시작함을 깨닫는다”는 저자 권삼윤 씨의 고백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저자는 그리스를 왜 ‘꿈꾸는 여유’라고 생각했을까. 그리스 땅은 척박하기 그지없다. 메마르고 불품없는 땅에 기댈 것이 없던 그들은 대신 다른 곳에 애정을 쏟았다. 우주물 가장 먼저 탐구하기 시작한 것도 그리스인이었고 사람과 신과의 관계를 고민한 것도 그들이었다. 땅 위에 대리석으로 역사적인 기념물을 만들어 놓은 것 또한 그리스인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여유’를 선택했다. 척박한 것을 척박한 대로 즐기는 여유. 거기서 얻어낸 것이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말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대자유였으리라.

그리스에 가면 이 나라를 단순히 TV 광고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여행지뿐만 볼 게 아니라 보다 입체적으로 조망해야 한다. 그리스 곳곳을 단순히 ‘아름답다’ ‘맛있다’ 로만 표현한다면 분명 2% 부족하다. 그리스는 평범한 길, 조그만 시장에도 문명이 스며 있는 ‘인류의 고전’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그리스 베테랑인 저자는 자칫 따분해 질 수 있는 그리스 문화 이야기를 여행기에 잘 비벼 맛있게 풀어냈다.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 여행을 앞둔 사람들에게 알찬 정보도 제공한다.

꼭 그리스에 가지 않더라도 휴가지에 옆에 끼고가서 그리스를 꿈꾸며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이 책을 즐기는 또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

■김말순(여행작가)

현대불교신문 창사40주년 독자사은대잔치

* 탄허스님의 육성법문 일부본은 탄허닷컴(www.tanheo.com) 육성듣기기 코너에서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출고정가 1Set-12만 6000원

참고교재 1권 포함 5만원 (74.8%할인)

탄허스님 육성 강의 (동양사상 특강 CD)

탄허대중사계서 1977년과 1982년 동안거 기간에 전국 강원의 중강이상의 스님 80여 명을 대상으로 하루 8시간씩 강의한 내용을 녹음한 250여 개의 테이프를 간추려 18장의 CD에 담아 처음으로 공개하는 스님의 육성 강의

탄허대중사계서 1977년과 1982년 동안거 기간에 전국 강원의 중강이상의 스님 80여 명을 대상으로 하루 8시간씩 강의한 내용을 녹음한 250여 개의 테이프를 간추려 18장의 CD에 담아 처음으로 공개하는 스님의 육성 강의

■ 판매처: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www.yosiamun.com) 마하물: 주문전화 02)732-1520(www.mahamall.co.kr) 주소: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신비의 마이산 탐사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관공과 방생을 한국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탐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기도

서울 대전 대구 전주 광주 마이산

진안 마이산 탐사 063)433-2900, 0303 432-0652, 0072